

한국 마을단위 사회적 자본의 형성*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 —

이미숙**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Korean Village

— Experience of Saemaul Undong in the 1970s —

Misook Lee**

Department of Saemau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38541,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started from the perspective that dynamics of the Saemaul Undong in the village which is a unit of saemaul development is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122 success village stories of Saemaul Undong in 1970~1979.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it extracted the social capital elements in the Saemaul Undong practice process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which are structural capital, actively developed.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relational capital such as trust and norms. This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on Saemaul Undong, and it can be used as an index of the participation of villagers in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developing countries.

Key words: social capital, rural development, Saemaul Undong, community participation, contents analysis

1. 서론

지역사회개발의 ‘지역사회(Community)’는 공유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로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Floral & Floral, 1993; 김경희, 오대민 & 정충섭, 2017).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정책인 새마을운동도 공동체의 상호작용의 터인 마을을 단위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 봉사,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기본 추진 동력이 된 범국민 ‘잘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숙, 2014). 새마을개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까지

정부 주도의 계획된 정책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즉 밑으로부터의 동력이 없었다면 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성수 등(2005)도 농촌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주민의 공동 노력(김성수, 권도하, 이채식 & 최영창, 2005)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밑으로부터의 주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민들 간의 신뢰와 마을 공동체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사회자본,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주민참여, 내용분석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주저자(이미숙) 전화: 053-810-2162; e-mail: misook@yu.ac.kr

우리나라 마을 단위의 신뢰와 공동체의식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 신뢰와 공동체의식, 둘째로 이와 같은 선천적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과정에서 새롭게 체계화된 후천적 신뢰와 공동체의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천적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와 공동체의식은 정부의 시책이나 교육, 정신계몽을 통해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양수 & 최외출, 2013)을 본 연구에서는 주목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마을단위에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 즉, 새마을운동 실천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 요소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마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둘째 새마을운동 실천과정에 나타난 신뢰와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잠재된 사회적 자본 요소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농촌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에 대한 개인적 기여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다. 공공재의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공공재의 소비와 분배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집합행동에 투신하지 않는 대신 그 열매를 따먹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아무도 공공재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열매만을 바라보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발전이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면 결국 신뢰와 협동의 규범에 기반을 둔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Yamagishi, 2001; 박준식, 정동일 & 성경룡, 2010). 신뢰관계 위에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흐르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이고, 비교적 낮은 거래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빠르게 축적된다면 그로부터 집단적 창조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정동일 & 성경룡, 2010). 마지막으로 호혜적 규범과 협력적 네트워크는 통일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헌신과 충성도를 고양할 수 있다(Fishman, 2004; Lawler & Yoon, 1996). 하지만 이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바라보게 되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분절되어 있는 네트워크 각각이 비교적 조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분절되어 있는 각각의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들 중 몇 명이 서로 깊이 있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한 Woolcock은 이 첫 번째 요소, 즉 공동체 내부의 강력한 유대를 통합성(integration)으로, 두 번째 요소인 공동체를 넘어선 연결망을 연계성(linkage)으로 개념화 했다. 첫 번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경우 “공동체 내부의 강력한 통합이라는 혜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 외부와의 확장된 연계로 진전되어야” 견고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Woolcock, 1998:174-175). 연계성은 지역사회 내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립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 지역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 지원기관, 중앙정부,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연계성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분절된 채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넘어선 외부 행위를 지역사회의 잠재적 파트너로 끌어들이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2.2 제도적 요인으로서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농촌지역 사회적 자본 형성의 논의를 통해 전통적 농촌사회에 통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농촌 지역사회는 마을단위의 강한 결속을 토대로 한 선천적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외부 기관에 의한 제도적·구조적 고려 즉 충격요인에 의해 통합적 형태의 후천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농촌발전·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 검토에서 충분히 새마을운동의 적절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 마을이 기존 폐쇄적이고 강한 집약성을 가진 주민들의 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농촌사회는 인적자원만이 주요한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므로 마을의 협

〈그림 1〉 농촌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연계성



동과 단결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강한 지역사회 결속력은 주민들간의 강한 폐쇄적인 단결을 형성하였다(윤원근, 2010). 이러한 전통적 환경에 대한 외부의 충격 즉 제도적인 요인으로 새마을운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생산기반시설 정비, 새마을교육을 주요내용으로 주민, 공무원, 새마을지도자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사회의 변화, 실천은 개별 마을단위 점조직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선형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고, 통합적 연계성을 가진 근대화된 농촌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요인의 작동 즉 새마을운동의 시행은 선천적 사회적 자본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실천정신과 다양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통합적 형태의 후천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수단이자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2.3.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은 그동안 국가 수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경험적 사례에 적용되어 그 설명력이 입증되어 왔다(Saxenian, 1994; Gittel & Vidal, 1998; Saegart et al., 2001).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론 학문적 성과를 이어받아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론적 혹은 개념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소진광, 2004; 허장 & 정기환, 2003; 박덕병, 2002; 이재열, 2006), 최근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은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낙후 농어촌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이희창 & 박희봉, 2005; 정동일 & 성경룡, 2010; 김영수 & 박종안, 2009).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는 우선 새마을운동은 국민에게 내재되어져 있던 공동체意識의 발현이었다는 연구이다. 박섭 & 이행(1997)은 정부의 영향력도 중요하나 새마을운동은 효율적인 농촌통제기구,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마을, 성장 지향적인 농민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처음은 관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과 같은 전통적 협동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새마을운동에 기여를 했다는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2009; 황연수, 2006), 지역공동체 내부의 자생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연구(강용배, 2004),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한국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한국인의 잠재적 요소를 이용하여 성과를 일구어 냈다는 연구(정기환, 2003) 등이 대표적이다(이현정, 2012).

이외에도 정부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마을에 내재되어 있던 공동체 의식이 상호작용하여 새마을운동이 실행되었다는 연구(소진광, 2007), 국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역수준의 리더는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들 간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주민들은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연구

(Eom, 2011)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양수 & 최의출(2013)은 새마을운동을 신뢰와 공동체 의식 관점에서 분석해 농촌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를 검증했으며, 소진광 & 김선희(2010)는 사회적 자본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 요소를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화 및 규범, 이타주의로 구분하여 다양한 표현 인자를 통해 새마을운동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음을 검증하였다. 김기홍(2012)도 농촌 마을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묻혀있는 개발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마을사회자본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지역사회개발, 사회적 자본,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정부나 외부에 의한 이니셔티브 도입이나 제도적·구조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시행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촌개발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제시했으나 도입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확인이나 제안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례 연구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단위로 현 상태의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는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제도적 요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실천요소들이 마을단위에서 나타나고 작동하는 것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새마을운동 성공 마을이다. 대상 마을은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¹⁾에 수록된 성공사례 수기를 작성한 122개 마을이다. 1973년에서 1979년까지 총 186개 사례 중 공장, 학교 등을 제외한 농촌, 산촌, 어촌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73~79년까지 성공마을 186개중 수기작성 122개 마을의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해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사례 수기는 특정 양식이나 목록을 제시하는 기록물이 아님으로 마을 사례를 기록하는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 개입이나

〈표 1〉 성공 사례마을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개, 명)

년도	성공사례 마을		전 체	사례수		
	전체	분석 대상		122	100.0	
1973년도	30	23	마을 유형	농촌마을	68	55.7
1974년도	18	12		산촌마을	31	25.4
1975년도	21	17		어촌마을	23	18.9
1976년도	29	17	성공 사례 수기 작성자	지도자	104	85.2
1977년도	25	16		부녀 지도자	6	4.9
				부녀 회장	6	4.9
1978년도	32	20		어촌 계장	3	2.5
1979년도	31	17		조합장	1	.8
				목사	1	.8
				무응답	1	.8
합계	186	122				

윤색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개별 사례에 특화된 내용 중심으로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라는 문헌이 갖는 중요성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내무부에서 발간한 공식자료 이면서, 주민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수기의 구성은 새마을운동 이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극과 특정 지도자의 주민 설득, 주민의 단결된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사건 발생, 주민들 간의 협업 체제의 안착, 수평적인 차원에서 소득 증대의 효과 체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실증분석은 내무부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1973~1979) 자료의 질적 내용분석과 양적 내용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이란 의사소통의 기록물이나 현재적 잠재적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응용사회과학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내용분석은 소급조사가 불가능한 역사적 연구에 유용하며,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피조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채구목, 2016).

본 연구의 분석의 단위는 단어(word)와 주제(theme)로 한다. 즉 단어는 사회자본 요소가 단어(구)로 직접 언급된 사례이며, 주제는 문장에 표현된 중심주제나 의미로 추출하였다. 분석의 카테고리 고리는 분석모형 도출에 적용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 즉, 구조적,

1)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는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발간 된 것으로 총 10년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담고 있는 내무부 발간자료이다. 이 중 1981년, 82년, 83년을 제외하고 7개년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1980년 발간되지 않음).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의 내용은 당해 새마을운동의 방향, 새마을운동의 성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 새마을운동에 관한 국무회의 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사회자본을 토대로 추출하였다.

추출과정은 성공사례 마을 수기의 내용 중 사회적 자본 요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와 구, 주제가 포함된 문장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여러 번의 필터링을 거쳐 최종 실천적 요소를 추출한다. 이와 같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경험적 연구과정이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용하기 위해서이다. 개방성의 원칙은 이미 알려진 범주에서 고찰된 사실 성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분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론을 본 연구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이론적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요소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3.3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Uphoff(2000)의 구조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에 기초하여 재구성 하였다. 구조적 자본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적인 영역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적 자본은 구성원간의 인지적 측면 즉 유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적용할 구조적 자본(제도)과 관계적 자본(인지)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사회적 자본이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자본의 대표적인 요소는 네트워크이다. 이는 관계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 신뢰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조적 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는 새마을운동 시기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부 네트워크는 범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추진 주체인 마을 내부의 제도적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 네트워크는 마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구조적 자본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라는 구조 속의 행위자들이 맺는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자본 즉 규범과 신뢰에 대한 실천요소들의 확인도 필요하다.

관계적 자본은 마을주민의 공동 약속인 규범과 주민들 간의 서로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뢰의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자본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계적 자본이 구조적 자본을 강화하고 존속시키는 동력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두 가지 대별되는 사회적 자본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시너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농촌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연계성<그림 1>에 기반하여 사회적 자본의 실천요소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즉 성공사례 마을은 새마을운동 시행에 나타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조적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주민들 사이의 상호유대를 통해 관계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했었다’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구분	구조(제도)적 사회적 자본	관계(인지)적 사회적 자본
근원과 징후	역할, 규칙, 네트워크, 대인적 관계들, 절차, 전례	규범, 가치, 태도, 신념
영역	사회조직	시민문화
역동적 요인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신뢰, 연대감, 협력, 관대함
공통된 요소	상호 이익을 산출하며, 협력적 형태를 이끌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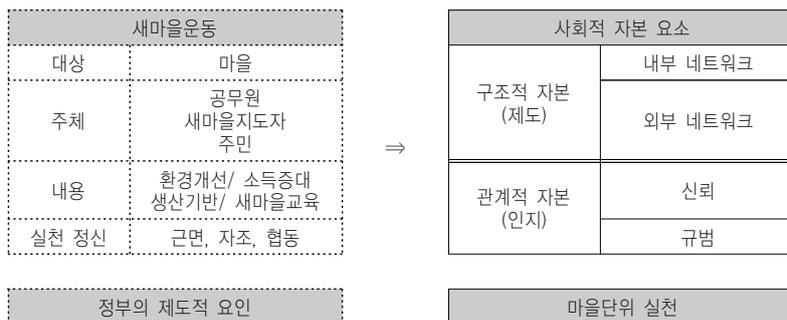
자료: Uphoff (2000) 재구성

4. 연구결과

4.1 구조적 자본 요소 탐색 결과

새마을운동이 구조적 자본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

<그림 2> 분석의 모형



해 내부네트워크와 외부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추출한 하부 실천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구조적 자본 요소

하부요인	탐색된 실천요소
내부 네트워크	마을 총회
	주민 조직 / 지도자 선출
	마을경진대회
	새마을의 날
외부 네트워크	자매결연·선진마을견학
	외부협의체 구성
	마을간 협동(공동) 사업
	지도자의 외부 새마을 교육
	정부지원

4.1.1 내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는 마을안에서 주민간의 제도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출하였다. 마을 주민간의 활동은 ‘마을 총회’, ‘주민조직 형성’, ‘마을경진대회 시행’, ‘지도자 선출’, ‘새마을의 날 운영’ 등이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성공사례 마을 중 1/3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마을 총회가 언급되었으며) 주로 ‘마을 총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 되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여러 사안과 함께 지도자에게 사업의 지휘권을 위임하는 등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사안 등 구체적으로 53건의 회의안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양한 형태와 진행 방식을 갖는 마을 총회는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마을 총회의 주요 안건
교량 건설, 새마을 사업 추진 계획, 새마을 지도자 선출, 대통령 하사금 사용처, 마을 환경 개선, 마을 숙원 사업 선정, 사업 추진 사항 및 결산 보고, 마을 회관 건립, 농로 확장 건의, 마을 진입로 확장 건, 마을 찾길 내기, 한 마을 청년회 조직 발족, 부녀회 활동,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 공동 재산 총결산, 마을 수몰로 떠돌아 다니는 주민들에게 설 자리 제공, 공동 해산물 수확·판매, 시장성 있는 도시 근교 작물 재배를 위한 주민 설득, 공장 마을 건설, 갯벌 개간, 잡초지를 담으로 변경, 마을 공동 소유 야산을 개간하기로 결정, 개담 공사 계획, 지도자에게 사업 지휘권 위임 건, 개발위원, 대표자 회의, 주요 사안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내부 네트워크 속

에는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체가 아닌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의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정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총 41개의 주민조직이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각종의 부문별 위원회 내지는 모임이 신설되어 주민들은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조직적 구성을 공고히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러한 중심에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지도자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주민 조직 유형
마을 부녀회, 마을 청년회, 마을 개발위원회, 4-H, 새마을금고, 추진위원회, 농우회, 어촌계, 저축운동 재건축진회, 청년회, 농사개량구락부, 청년향토번영회, 세대 군인 자치청년회, 학생회, 단지 영농회, 단지 증산회, 도로공사추진위원회, 반상회, 방역응역반, 상조회, 상인회, 산림계, 여성민방위대, 부녀 예비군, 중학교 설립추진회, 지역개발위원회, 선원협동회, 선인학회, 부락개발운동, 양돈조합, 간척계, 군 번영회, 농업협동조합, 리개발위원회, 감 작업반, 시장번영회, 자활개척단, 지도자 협의회, 축산조합개발위원회, 교량가설추진위원회, 새마을합동권 도로포장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그런데 내부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 총회를 비롯한 회의체 및 각종 위원회는 ‘새마을의 날’이라는 모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새마을의 날’을 정하여 정례적인 마을 단위 모임을 갖는 토론 기구를 만든 경향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마을 자체의 경진대회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을 독려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새마을운동 총 전진대회’ 등으로서 마을 구성원들 간의 단합과 통합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1.2 외부 네트워크

마을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부네트워크의 재구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외부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과 견학’, ‘외부인사 방문’, ‘협동(공동)사업 추진’, ‘새마을 교육 시행’, ‘정부지원’ 등의 19차례 언급되었다.

새마을운동 전에도 일상적인 인적 교류와 상거래 정도는 지속되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소극적인 소통에 머물던 마을 외부와의 교류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더욱 활발하고, 목적을 가진 소통과 교류로 이어졌다. 이러한 외부네트워크 형성유형은 ‘성공사례마을 견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외부마을 사람과의 토론’, ‘외부협동 협의체 구성’ 등 마을 밖의 교류로 확대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2) 2/3의 마을에 총회가 없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마을 총회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마을 총회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마을 총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

외부 네트워크의 유형
성공사례 마을 견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운동 선진 마을 견학, 외부 마을 사람과의 토론, 마을 새마을공장 운영을 위한 외부 전자 회사 하청, 군내 시범농장으로 선정되어 다른 마을의 견학장이 됨, 농사 기술 공유, 지역 출신 유명 인사 방문,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일손 부족으로 이웃 마을 일꾼 고용, 협동 구성체 연구, 자매 결연

이러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는 새마을 지도자의 외부 교육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새마을교육이 단지 새마을운동의 전달뿐만 아니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사업 등 목적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농 관련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 관련 교육’, ‘정신계몽 및 문맹 퇴치’, ‘문화교실’ 등도 언급되고 있었다. 즉 새마을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을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내용
새마을연수원 교육, 새마을 지도자 교육, 재건운동 중앙교육원 교육, 농민 교육원, 농촌진흥원 잠업교육, 농촌 지도소의 영농 기술 교육, 마을금고 중앙교육, 수산진흥원 양식 관련 지식과 기술, 수원 원에 시험장 파인애플 재배 교육, 인근 마을 곶양식 기술 교육, 타 도시 표고 집단 재배기술, 협동교육 연구원 협동조사 지도자 교육, 대관령 고냉지 시험장 재배 기술 지원, 감골원의 감귤 재배 기술 익힘, 농업고등학교 찾아다니며 전문기술 배움, 인근 마을 선도자 찾아다니며 영농 재배 기술 익힘, 이웃 마을 전문가와 지도소의 목목 재배 기술 교육 익힘

더 나아가서는 마을 내 혹은 마을간 공동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 사업에서는 ‘경로대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전통적 가치 계승과 ‘퇴비증산운동’, ‘공동 정미소 운영’, ‘과학 영농 관리’, ‘공장 공동 운영’ 등 새로운 영농기법의 공유를 위한 공동체 협동사업도 눈에 띈다. 이러한 사업들이야말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수되고 정착된 협동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사업 내용
노인 경로대잔치, 불우이웃 돕기, 새마을의 날, 년 2회 초소 장병위문, 장학금 지급, 저축실적 우수학생 표창, 주민 공동 명의 용자, 퇴비증산운동, 공동 정미소 운영, 과학적 영농관리를 위한 영농 작업을 일지 상세히 기록, 정갈 공장 운영, 인력절감을 위한 부녀회의 영양개선의 집 만들기

외부 네트워크의 기능 중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원금’, ‘물품’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표현을 ‘하사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지원금이라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122개 성공사례 마을 중 42개 마을에서 대통령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부, 내무부 장관,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통한 지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시멘트나 철근을 지원받았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의 성과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정책집행의 내용을 마을단위에서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대통령 하사금 및 특별지원금, 시멘트 지원, 정부 지원금, 새마을지도자대회 포상/지원, 내무부 장관 지원금, 철근, 보조금

이와 같이 외부 네트워크는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외부 네트워크를 새롭게 정비하여 구조적 자본으로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2 관계적 자본 요소 탐색 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관계적 자본 형성은 주민들 간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즉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제공하거나 요구한 사항은 아니나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중심 실천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관계적 자본은 주민 간 교류를 통한 신뢰형성요인과 규범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실천요소를 추출하였다.

〈표 3〉 관계적 자본 요소

하부요인	탐색된 실천요소
신뢰 (주민 간 교류)	민주적 사업 선정 방식
	지도자 선출 방식
	설탁, 이해협조, 호소
	사업추진 사항 공개
규범	마을 기금
	기부
	규약
	공동 목표

4.2.1 신뢰

주민 간 잦은 교류를 통한 실천적 요소들은 마을주민의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든지 일부 사람들이 임의로 결정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 분석 결과 사업선정 방식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마을 총회가 6사레로 나타났고, ‘부녀회나 지도자가 안건을 발의’했다는 언급 등

이 있고, ‘청년향토번영회 등 특정 조직을 통해 추진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선정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입안되고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구성원 간 토론을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케 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자 선출방식도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언급도 발견되었는데, ‘추대 및 선출’이라는 방식이 있고, 일부는 ‘스스로 지원했다’는 언급도 있다. 이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도 주민들의 동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갖추려 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마을운동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상명하복식 정책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주민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 하고 자발적인 참여로까지 이끌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지도자의 노력 부분이다. 주로 언급된 내용은 잘 모르거나 혹은 저항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설득과 호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례(59사례)로 확인된다. 단기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이고 이는 설득과 토론을 통해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여주었다’는 기록(21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주민 교류 및 지도자 역할
마을 주민 설득, 주민 호소, 헌신적인 노력, 개인별 방문 토론/설득, 솔선수범, 역할, 마을 사람들 규합, 봉사, 끈질긴 지도, 주민 토론, 공동 저축, 장학금 기부, 마을 실태 조사 실시, 기술 교육 전달,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

성공사례 마을마다 제시된 초기의 목표 중 특히 숙원사업으로 제시된 것을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새마을지도자의 설득과 독려가 초기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숙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참여를 요구받게 되는 과정 그리고 숙원사업을 성공한 후 성과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숙원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에게 일종의 자신감 회복과 자존감 부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새마을운동의 주체와 조직, 과제와 내용, 과정과 규범 등 전반에 대한 신뢰이겠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공유한 것은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2.2 규범

규범은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가장 수월한 증거일 수 있다. 규범은 그 자체로 명문화되어 있을 수가 있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패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존재의 확인 여부가 쉽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성공사례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의 규약’을 마련하는 경우(37건)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규약은 대부분 마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답을 팔지 않고 늘리기”, “하루 한 식구 4수저씩 절미” 등과 같이 각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 내용에서부터 공동작업 운영규약까지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사례에서 ‘절미 운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절미를 통해 마련된 쌀을 팔아서 공동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다’는 등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주민들의 절미 운동이 크게 기여했으며, 이것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새마을금고 출자를 통해 초기 사업을 위한 자본을 마련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민 내의 규약
절미 저축, 새마을금고 출자, 공동작업, 절미 운동, 새마을은 공휴일이 없다, 마을 협동 단결의 모체가 되자, 마을 공동 공사에 불참, 방관하는 사람은 마을 주민 자격상실, 돈을 밖에서 안쓰고 안에서, 잘 사는 농촌 3년 앞당기기, 협동으로 뚝치 시장 안가기

절미운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매 식사 시 쌀의 일부를 덜어내어 이를 모아 공동기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매일 소비하는 식량의 일부를 십시일반 식으로 각축하였다는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의 규범을 생활 속에서 습성화시킨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 습성화는 규범의 공고화 및 규범을 통한 구조적 사회적 자본인 내부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물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됐는데, 그 중 ‘토지회사’와 ‘저

축운동을 언급한 경우가 있다. 이는 관계적 자본 중 규범을 만들어 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민 중 새마을 운동을 위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 혹은 지도자에 의해 필요한 토지가 회사됨으로써 물질적 기반 마련에 앞장선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이를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재산도 제 공할 수 있다는 규범으로 정착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1973년 성공사례 마을 중 토지회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양문면 탄도리 마을의 경우에는 토지회사가 전파 되어 다수의 마을 주민이 토지회사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많은 토지를 가진 주민의 토지회사가 그보다 적은 토지를 가진 주민의 회사를 촉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회사는 물질적인 기반의 조성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실제적 규범으로 작용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주민 간 이와 같은 기부 유형은 ‘토지 회사’, ‘토지사용 승낙서’, ‘현금 기부’(28사례)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민 간 기부의 유형
토지 회사, 현금 기부, 토지사용승낙서, 건물 회사, 지도자의 7만 3천원으로 통장 219개 개설 후 350만원 모으기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관리했던 방식을 언급한 사례도 있다.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기금을 마련했다’는 기록이 19사례로 많았고, ‘공동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공동기금으로 출원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주로 마을회관, 구판장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 데에 활용되었으며, 상하수도 및 급수시설 등 마을 주민 전체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이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추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마을운동을 초기에 채택하여 추진한 마을의 경우 그렇지 못한 마을에 비해 행정적인 차원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구축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마을 자치적 규범을 정착시키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새마을개발 정책의 대상인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새마을운동 과정의 동학(動學)을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라는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을이라는 정책 대상 자체가 사회적 유대감을 공유한 지리적 문화적 영역일 뿐 아니라 전국 연결망을 갖춘 단위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 양상을 추적하는 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구조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용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을 내외의 네트워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공고화는 각 마을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성공마을에서 언급되고 강조된 구체적인 조직 형태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마을총회와 각 부문별 위원회 등의 조직화가 급속히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조직체의 명칭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규범과 신뢰라는 관계적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강화에도 새마을운동이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을규약 등으로 공동의 규범을 제도화한 근거를 다수의 성공마을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마을 공동체 내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적 연결망이 보편화된 호혜주의(reciprocity) 규범을 강화한다는, 그래서 개인의 참여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든 신뢰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의사소통과 협동을 조장하며, 과거의 성공을 구체화한다 (Putnam, 1993:45)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근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기의 관주도로 계획된 새마을운동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단위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마을단위 사회적 자본 구축에 영향을 미친 새마을운동의 기여를 확인하고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향후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현대 지역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사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사회적 자본 축적이 지역사회빈곤 퇴치의 유용함을 인지하고 확대해 나가려는 즈음에 개발도상국가의 자립형 농촌개발 전략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40여 년 전의 상황을 제한된 문헌으로 분석했다는 점과 정부

에서 발간한 자료만을 연구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본 연구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초기 관주도로 시행되었으며, 1970년대에 민간 주도 연구 자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당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역량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2. 김경희, 오대민, & 정충섭. (2017).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학습단계와 주민역량 강화. *농촌지도와 개발*, 24(1), 49-61.
3. 김기홍. (2012). 마을개발 경험에 관한 유형별 에스노그래피;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연구*, 3(1), 43-76.
4. 김성수, 권도하, 이채식, & 최영창. (2005).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공유. *농촌지도와 개발*, 12(2), 271-286.
5. 김영수, & 박종안. (2009).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167-206.
6. 내무부. (1973-1982).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 서울: 내무부.
7. 박덕병. (2002).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로서 그린투어리즘. *지역사회발전연구*, 27(1), 151-170.
8. 박섭, & 이행. (1997). 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 *한국정치학회보*, 31(3), 47-67.
9. 박준식, 정동일, & 성경룡. (2009). 지역 낙후성의 구조와 전환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사회적, 창조적 자본이론의 관점. *지역사회학*, 10(2), 31-62.
10. 소진광, & 김선희. (2010).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 구조 개편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11.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18(2), 67-90.
12. 소진광. (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59(3), 93-112.
13. 윤원근. (2010).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17(2), 279-304.
14. 이미숙. (2014). 새마을교육에 기반한 개도국 인적역량개발 전략. *한국지방자치연구*, 14(4), 113-130.
15. 이미숙.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사회적 자본 특성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9(2), 1-22.
16. 이양수, & 최외출. (2013). 상향식 지역사회발전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추진동력: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1(1), 125-146.
17.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18. 이현정. (2012).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 이희창, & 박희봉. (2010). 신뢰와 제도의 관계: 문화이론과 제도이론의 효과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131-156.
20. 정기환. (2003).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존재 양태 분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정동일, 성경룡. (2010).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지니어스; 신활력사업 대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1), 60-97.
22. 채구묵. (2016).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파주: 양서원.
23. 허장, & 정기환.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24. 황연수. (2006). 농촌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농업사연구*, 5(2), 17-53.
25. Eom, S.-J. (2011). Synergy between State and Rural Society for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 *Korea Observer*, 42(4), 583- 620.
26. Flora, C. B., & Flora, J. L. (1993). Entrepreneurial social infrastructure: A necessary ingredi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9, 48-58.
27. Gittel, R., & Avis, V. (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Thousand Oakes, CA: Sage.
28. Lawler, E. J., & Yoon, J. (1996). Commitment in exchange relations: Test of a theory of relational cohe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1), 89-108.
29.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993(13), 35-42.
30. Saegert, S., Phillip, T., & Mark, W. (2001). *Social capital and Poor Communities*. New York, NY: Russel Sage Foundation.
31. Saxenian, A. L.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32. Uphoff, 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33.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2), 151-208.
34. Yamagishi, T. (2001). Trust as a form of social intelligence. In: Cook Karen S (ed.). *Trust in society*.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Received 11 August 2017; Revised 02 September; Accepted 15 September 2017



Dr. Misook Le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Saemau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Yeungnam University in Korea. Her major is Community Development. She is interested in Saemaul Development Policy, Social Capital, Rural Develop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ddress: 280, Daehak-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E-mail) misook@yu.ac.kr
phone) +82-53-810-2162